



Cosmetic Industry Insights Report

K뷰티 산업과 지속가능경영

화장품 산업을 이끄는 트렌드 ESG



화장품 산업계는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다.

이에 소비자의 가치 소비 확산은 지속가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략적인 마케팅 요소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지속가능경영 이행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직결되고 있다.



화장품 산업은 하룻밤 사이에
100% 지속가능해질 수는 없다.
점진적이나, 완전한 지속가능성을
달성해야 한다.

ESTÉE
LAUDER
COMPANIES

NANCY MAHON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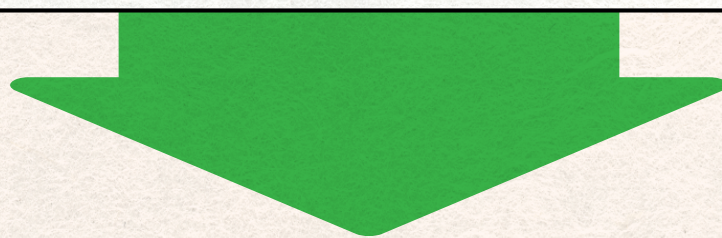
ESG 수출 규제인가 기회인가



ESG 규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가능경영 공시,
공급망 실사 지침, EU에코디자인 규정,
자원순환 정책 도입을 통해 EU역내 수출 기업 및
역내 경영을 영위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요구강화



화장품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은
EU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들의 규제가 국제적인 표준을 설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유럽시장내 국내 화장품 산업의
Market Share 증가 폭이 향상됨에 따라

**규제 대응 미흡으로 인한 거래 기회를 상실 또는
무역장벽을 직면하지 않기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EU의 핵심 ESG 규제

화장품 수출 기업들이 유럽의 ESG 규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 요소

01 자원순환

- ✓ PPWR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
- ✓ ESPR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02 그린워싱

- ✓ 친환경 표시 지침 (Green Claims Directive)
- ✓ 친환경 표시 코드 (Green Claim Code)
- ✓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03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 ✓ CSDDD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 ✓ EUDR (산림 전용 방지 제품에 관한 규정)

04 지속가능경영 공시

- ✓ CSRD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01

자원순환



화장품 업계에 불어오는 친환경 바람은, 패키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사용기한 경과로 버려지는 화장품을 업사이클링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 구축

PPWR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

- ✓ EU 수준의 조치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효율적 포장 사용 및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구축이 목표

ESPR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 ✓ 우선순위 품목군에는 철강, 알루미늄, 섬유, 가구, 타이어, 세제, 페인트, 윤활유, 화학물질, ICT 제품군이 포함
- ✓ 화장품 산업에서는 특히, 제품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높은 영향을 미침

*현재 화장품은 우선순위 제품군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화장품은 예비 순위로 에코디자인 규정의 대상 품목이 높은 가능성 보유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Strategy Setting

- ✔ 화장품 산업계는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선택부터 **재활용 비율을 고려한 제품 설계** 및 디자인

Strategic Task

- ✔ 부자재(화장품 용기) 기업은 플라스틱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 설비 시설 투자 및 **생분해성 원료와 같은 원재료 전환**


Enhance Consumer Engagement

- ✔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효과적 소통

그린워싱

- ✔ 소비자를 대하는 산업, 구매 빈도가 높고 필수품을 판매 및 광고하는 화장품 산업은 그린워싱에 취약
- ✔ 온라인에서 제품, 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친환경적 마케팅이 과열 현상 존재
- ✔ 그린워싱에 휘말린 기업들은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닌 평판 악화를 통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





그린워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예방적 접근

- ✔ 친환경 메시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품의 친환경적 데이터 검토
-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 ✔ B2C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 대상 제품의
메시지를 테스트하여 명확한 근거 재식별
-

투명한 정보공개

- ✔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해 수집, 처리,
보증한 데이터를 기업의 B2C 환경 관련 주장 입증 시
활용하여 환경적 영향의 명확한 근거 마련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CSDDD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뿐만이 아닌 EU회원국 내 종속회사 및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 지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EUDR (산림전용 방지 규정)

- ✔ 전 세계 산림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7대 규제 품목을 포함하거나, 공급, 사용하여 만든 관련 제품에 규제가 적용되며 2023년 6월 29일 이후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

*유럽 회원국내 생산법인을 보유하여 팜유를 조달할 시 조달한 팜유를 포함, 공급,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유럽시장에 출시할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해당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점검하기

- ✔ 기존 공급망과의 사업 관계 유지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점검을 통한 개선** 및 리스크 완화 조치 수행 필요
-

종합적 관점으로 모니터링 하기

- ✔ 공급망의 공시 위험을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련 규제**의 **진전** 지속적 모니터링
-

전략적 계획 수립하기

- ✔ 공급업체 대상 실사 이행 시 취합 및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 및 경영활동에 대한 자료들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교육 또는 컨설팅과 같은 지원책** 마련 필요

지속가능경영 공시

CSRD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 ✓ 지속가능성 정보가 재무정보와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함을 강조하고, ESG 정책과 연계성 보완을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일관성, 접근성, 비교가능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CSRD를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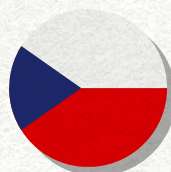
EU 회원국 CSRD 법제화 현황

유럽시장내 국내 화장품을 수출 또는 현지 법인을 보유하여 제조하는 기업들은 CSRD 공시 의무화 적용 기업일 시 ESG 전략, 목표 및 진행 상황은 물론 공급망 관련 정보 공시이행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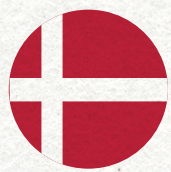
CSRD 국내법 전환 완료



크로아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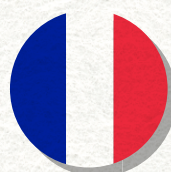
체코



덴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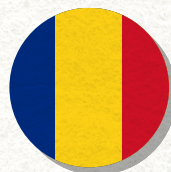
핀란드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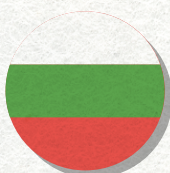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불가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